금주의 법구–〈별역잡아함경〉
애욕보다 큰 것이 없고,
분노보다 깊은 것이 없고,
교만보다 높은 것이 없다.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55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9월 4일) 2023년 10월 18일 수요일



조계사 시월국화 향기, 서울을 채우다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피워낸 국화 향기가 서울 도심을 가득 메웠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10월 10일 제13회 국화향기나눔전 '시월국화는 시월에 핀다더라' 개막식을 갖고 가을 정취를 만끽할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11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국화축제는 국적, 연령, 종교에 상관없이 국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화합의 장이 될 전망이다. 글 · 사진=김내영 기자

10월 전국은 '불교문화'로 물든다

조계종, '2023 불교문화대전' 개최
10월 18~31일 '불교문화주간' 지정
명상 · 불교예술 접목 강연, 콘서트
첫 '전국 청소년 끼 경연대회' 눈길
전국 사찰서도 문화예술행사 이어져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완연한 가을인 10월, 불교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불교문화대전'이 펼쳐진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혜공)는 10월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불교문화주간'으로 지정하고 희망과 행복을 찾는 불교계 가을축제인 '2023 불교문화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불교문화대전'은 10월에 많이 열리는 전국 각지의 불교문화행사를 문화주간에 집중해 불자와 국민들에게 불교문화를 향유하는 장으로 올해로 4회를 맞이했다.

올해는 제32회 불교미술대전을 비롯해 30여 개의 문화행사들이 이어진다. 특히 올해에는 조계종 종책사업인 명상과 불교예술을 접목한 문화행사들이 다양하게 진행된다는 게 특징이다. 또한 청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대폭 확대된 점도 눈길을 끈다.

'청춘토크파티'를 통해서는 △'홍대선원'과 함께하는 청춘토크파티(10월 21일 오후 6시, 홍대선원) △'사찰음식체험'과 함께하는 청춘토크파티(10월 28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 사찰음식문화체험관) △대학생 청년 불자와 함께하는 문화콘서트(10월 28일 오후 3시, 서울 종로 더 룸 탁트인) △대학생 청년 불자와 함께하는 무여 스님 북콘서트(10월 30일 오후 6시 30분, 대구) △대학생 청년 불자와 함께하는 원제 스님 북콘서트(10월 31일 오후 6시, 강원대) 등 청년 불자를 대상으로 한 명상, 사찰음식 등 다양한 토크 콘서트가 예정돼 있다.

기획 공연을 통해서는 명상과 불교문화예술이 접목된 강연과 콘서트가 이어진다. 10월 19일 오후 7시 조계사에서 진행되는 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 초청 명상 강연을 시작으로 △명상음악콘서트(10월 24일 오후 7시, 조계사) △명상무용콘서트(10월 25일 오후 6시, 조계사) △불교예술 공연콘서트(10월 26일 오후 7시)가 열린다.

이와함께 전국 사찰에서 개최되는 문화예술제를 불교문화대전 기간에 집중시켜 불교문화축제가 전국의 불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길을 끈다. 서울 봉은사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국 청소년 끼 경연대회'는 청소년 포교를 위해 특별히 새롭게 준비된 행사다. 유명연예기획사가 함께 참여해 미래의 K-팝 스타를 발굴하는 행사로 전국 예선을 거쳐 10월 22일 대회에는 본선이 진행된다.

주요 사찰 불교문화예술제 행사로는 △성주 심원사 '제11회 가야산 산신대제'(10월 21일, 오후 1시) △서울 금선사 '산사의 울림'(10월 21일 오후 2시) △평택 동녕사 '2023 이웃 종교인, 주한미군과 함께 하는 한미화합한마당'(10월 21일 오후 2시) △생명나눔실천본부 '생명나눔산사음악회'(10월 21일 오후 3시, 남양주 불암사) △경주 골굴사 '제19회 골굴사 전통무예대회 및 산사예술제'(10월 22일 오전 10시) △서울 삼천사 '꽃장엄 불교문화축제-모두의 추스림'(10월 26일~11월 1일) △의정부 성불사 '시민과 함께 하는 건강 작은 음악회'(10월 28일 오후 2시) △광주 증심사 '무등산 가을 산사음악회'(10월 28일 오후 3시) 등이 진행된다.

'2023 불교문화대전'은 10월 18일 오후 7시 조계사에서 열리는 개막식과 축하공연으로 시작을 알린다. 불교문화대전 기간 중 함께 진행되는 제32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에서는 공모전을 통해 우수한 작품으로 선정된 불교미술 작가들의 작품들이 10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아라아트센터 2, 3층에서 전시된다.

폐막식은 10월 31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열리며, 한 해 동안 불교문화 창작과 홍보에 애쓴 예술인들과 언론인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제31회 불교언론문화상, 제20회 불교출판문화상, 제10회 신작찬불가 공모상의 시상식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문화부장 혜공 스님은 "불교문화대전은 시행 초기 2년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돼 오다가 지난해부터 오프라인으로 전환됐다. 올해는 앞선 행사들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기획 · 준비했다"고 자부했다.

이어 "특히 올해 불교문화대전은 명상과 불교예술의 결합과 청년 불자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행사들을 대폭 강화했다"면서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축제들을 10월 동안 만나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태고종 제20세 종정 지허 대종사 적멸로 나아가다

10월 8일 선암사서 영결 · 다비
사부대중 500여 명 참석해 애도
9일 습골과정서 사리 22과 수습
오는 11월 9일 선암사서 49재

뛰어난 수행력으로 태고종을 이끌었던 前 종정 지허당 지용 대종사 영결 · 다비식이 엄수됐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은 10월 8일 순천 태고총림 선암사(주지 승범) 무량수전 앞에 마련된 영결식장에서 영결식과 다비식을 봉행했다.

영결식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원로의장 도광 스님, 선암사 방장 지암 스님, 종회의장 법담 스님, 前 총무원장 호명 스님, 행정부원장 능혜 스님, 선암사 주지 승범 스님과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소병철 · 이현승 · 서동용 국회의원, 노관규 순천시장, 임권택 영화감독 등 다양한 종교계, 정관계, 문화계 인사들과 신도들이 참여해 큰스님의 마지막을 함께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영결사를 통해 "이제 종단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여 더더욱 큰스님의 가르침과 꾸짖음이 절실한데 다시는 그 크신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 슬픔이 가득하다"며 "가시는 모습 그대로 곧 다시 우리 곁에 돌아오실 것을 믿으며 삼가 큰스님의 각령 앞에 일향구를 올린다"라고 말했다.

중앙종회의장 법담 스님도 "조계의 하늘에 청운이 빗겨있고 초목은 아직도 푸른데, 유유자적하면서 낫과 괭이 벗삼던 납자가 홀연히 가셨다"고 추모하며 "세상의 인연은 전생으로부터 이어짐이라는데 언제 또다른 세상의 회상에서 만날 것입니까. 그때도 소중한 인연을 흘려버려 소식을 듣지 못할까 두렵다"고 추도의 말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종단협의회장 진우스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호영 국회정각회장 등이 조사를 통해 대종사의 원적을 애도했다.

지허 대종사 문도회장 승원 스님과 문도들은 참석 대중에게 인사말을 통해 "참여해주신 대덕 큰스님과 여러 귀빈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저희 문도들은 큰스님의 뜻을 이어받아 더욱 정진과 수행으로 가르침을 실천하는 제자가 되겠다"며 감사의 절을 올렸다.

영결식에 이어 대종사의 법구는 장엄번과 광주영산재 스님들의 범패를 선두로 평소 기도정진을 해온 대웅전을 지나 부도밭과 승선교, 다비장에 이르렀다.

임시로 마련된 다비장에 도착한 법구는 이내 연화대에 이운 · 안치됐다. "큰스님, 불 들어갑니다!" 연화대에 불을 당기는 거화의식이 진행됐고, 지허 대종사의 법구는 연화장 세계로 나아갔다.

한편, 지허 대종사의 법체에서 사리 22과가 수습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허 대종사 종단장 장의위원회는 "10월 8일 지허 대종사의 다비식 이후 10월 9일 오후 습골 과정을 거친 결과 총 22과의 사리를 수습했다"고 밝혔다.

태고종 제20세 종정을 지낸 지허 대종사는 1956년 선암사서 지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2년 전주 관음선원서 묵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경남 합천 해인사 용탑선원과 양산 통도사 극락선원, 통영 미래사 토굴 등서 용맹정진했으며 종파를 초월해 고암 · 경봉 · 전강 · 구산 스님 등 당대 선지식들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이후 순천 선암사로 돌아와 폐허가 된 비로암에 토굴을 짓고 3년간 두문부출하며 수행에 전념한 지허 스님은 선암사 칠전선원서 차밭을 손수 가꾸고 법제를 재현하는 등 한국차문화 중흥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개진했다. 1994년 선암사 제3세 주지 소임을 맡아 적묵당과 조사당, 선각당 불사를 이끌었으며, 성보박물관을 건립하는 등 사격을 높였다. 1979년 7월에는 순천 금둔사지에 금둔사를 복원, 중창 불사에 매진했다.

태고종 종권수호위원회 위원(2002), 제11대 중앙종회의원, 태고중앙선원장(2005), 선암사 부방장, 교육위원회 위원, 용연사 주지, 제2 · 4 · 5대 원로회의 의원을 지냈다.

지허 대종사의 49재는 10월 8일 순천 선암사에서 봉행된 초재를 시작으로 2재는 10월 15일 순천 금둔사에서 열렸으며, 3재는 10월 22일 울진 옥정사, 4재는 10월 29일 벌교 용연사, 5재는 11월 5일 고흥 용흥사, 6재는 11월 12일 경기도 광주 자은정사, 막재는 11월 19일 순천 선암사에서 봉행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태고종은 10월 8일 순천 태고총림 선암사 일원에서 지허 대종사 영결 · 다비식을 봉행했다.

